

폭염에 사상 첫 전 경기 취소...프로야구 이틀 멈췔다

기록적인 폭염이 결국 프로야구를 멈춰 세웠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이틀 연속 취소하면서 KBO리그 출범 이후 처음으로 폭염 때문에 모든 경기가 열리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KBO는 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KIA타이거즈와 KT위즈의 경기를 비롯해 잠실(NC-두산), 문학(LG-SSG), 대구(한화-삼성), 사직(키움-롯데) 등 5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이어 폭염 관련 종합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6일 예정된 KBO리그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 역시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취소된 경기는 추후 일정에 맞춰 재편성

된다. 이번 결정은 리그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선수단과 관중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KBO는 경기 강행보다 안전을 선택했다. 여름철 폭우나 태풍으로 전 경기가 취소된 적은 있었지만, 폭염만을 이유로 리그가 멈춘 것은 처음이다. 기후 변화로 극한 더위가 일상이 되면서 프로야구도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 1일 사직 롯데-삼성전과 창원 NC-KIA전, 2일 NC-KIA전이 폭염으로 취소된 데 이어, 4일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잠실과 광주에서 두산-NC전과 KIA-KT전이 열리지 않았다.

KBO, 5~6일 1군·퓨처스 전 경기 취소...긴급 대책 논의 선수·관중 안전 최우선...혹서기 리그 운영 변화 불가피

폭염으로 인한 취소가 잇따르자 현장에서는 선수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LG 경기에서는 관중이 폭염으로 쓰러져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리그 전체의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선수뿐 아니라 수만 명의 관중이 장기간 폭염에 노출되는 만큼 경기 운영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다. KBO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 4일 경기 운영 기준을 세분화한 바 있다. 경기 개최 지역에 폭염경보 이상이 발효되면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을 최대 1시간 늦출 수 있고,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질 경우에는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까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또 경기운영위원과 심판진, 양 구단 협의를 통해 이닝 교대 시간과 클리닝타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구단에는 선수단 냉방장비와 음료를 충분히 비치하고 응급 의료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전광판을 활용해 관중들에게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도록 했다. 선수단 더그아웃과 관중석의 냉방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그러나 기준 마련 직후에도 폭염으로 인한 취소와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KBO는 6일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선수단과 관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 운영 기준과 혹서기 리그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경기 시작 시간 추가 조정과 취소 기준 보완 등 다양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변화로 여름철 극한 폭염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프로야구도 새로운 운영 기준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사상 첫 전 경기 취소는 단순한 일정 변경을 넘어, 혹서기 프로스포츠 운영 방식이 달라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영암 김민재, 백두장사 18회...이만기와 어깨 나란히

올 시즌 백두장사 4관왕...개인 통산 21번째 황소트로피
이태현 최다 20회까지 단 2회...역대 최고 기록 정조준

‘백두급 최강자’ 김민재(24·영암군민속씨름단)가 개인 통산 18번째 백두장사에 오르며 ‘씨름 황제’ 이만기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올 시즌에만 백두장사 4관왕을 달성한 김민재는 역대 최다 백두장사 기록 경신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김민재는 지난 4일 경북 문경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6 민속씨름 문경오미자장사씨름대회’ 백두급(140kg 이하) 장사 결정전(5판 3선승제)에서 김진(증평군청)을 3-0으로 완파하며 황소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우승으로 김민재는 지난 2월 태안실날장사씨름대회, 3월 단양은달장사씨름대회, 6월 보은단오장사씨름대회에 이어 시즌 네 번째 백두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천하장사 3회를 포함한 개인 통산 장사 타이틀도 21개(백두장사 18회·천하장사 3회)로 늘렸다. 무엇보다 이번 우승은 한국 씨름 역사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민재는 개인 통

산 18번째 백두장사에 오르며 1980년대 모래판을 호령했던 ‘씨름 황제’ 이만기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만기는 백두장사 18회와 천하장사 10회, 한라장사 7회 등 수많은 타이틀을 거머쥔 한국 씨름의 전설이다. 더 큰 기록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백두장사 최다 우승 기록은 이태현 용인대 교수가 보유한 20회다. 김민재는 앞으로 두 차례만 더 정상에 오르면 공동 1위, 세 차례 우승하면 단독 최다 기록의 새 주인공이 된다. 특히 이만기가 만 26세에 백두장사 18회 고지에 오른 것과 달리 김민재는 만 24세에 같은 기록을 달성해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욱 밝게 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김민재의 경기력은 압도적이었다. 16강에서 임진원(정읍시청)을 2-0으로 제압한 뒤 8강에서는 윤성희(동작구청)의 기권으로 준결승에 올랐다. 이어 마관수(문경시청)를 상대로 연속 밀어치기를 성공시키며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결승에서는 개인 통산 장사 타이틀



지난 4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6 민속씨름 문경오미자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kg이하)에 등극한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장사인증서와 황소트로피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씨름협회

11회(백두장사 9회·천하장사 2회)를 보유한 김진을 상대로 한 수 위의 기량을 선보였다. 첫 판에서 잡채기로 기선을 제압한 김민재는 두 번째 판에서 주특기인 들배지기(돌림배지기)로 승리를 따냈고, 세 번째 판에서도 잡채기를 성공시키며 단 한 판도 내주지 않은 채

3-0 완승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올 시즌 백두급 최강자로 자리매김한 김민재는 개인 통산 기록은 물론 역대 최다 백두장사 기록 경신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영암=한청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전남 유도 박예지, 아시아선수권 동메달 쾌거 여자 52kg급 결정전서 한판승...전국체전 입상 기대

전남 유도 기대주 박예지(순천미래과학고 3년)가 국제무대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며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박예지는 최근 마카오에서 열린 ‘2026 마카오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여자 52kg급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메달은 지난 5월 청룡기 전국유도대회 2연패에 이은 성과다. 국내 무대에서 검증된 기량을 국제무대에서도 보여주며 전남 유도의 차세대 간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예지에게 이번 국제대회는 더욱 의미가 깊었다. 지난해 국제대회 출전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십자인대 부상으로 출전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활과 훈련을 거쳐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무대에 선 그는 끝내 메달을 따내며 지난 아쉬움을 씻어냈다. 경기 과정도 투혼의 연속이었다. 박예지는 8강에서 몽골의 르하그바도르지와 연장 접전을 펼쳤으나 연장 1분께 안다리 기술을 허용하며 유효패에 준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그러나 패자전에서 집중력을 되찾았다. 러시아의 에레멘코를 상대로 경기 시작 1분 만에 안뒤축결기로 한판승을 거두며 동메달을 확정했다. 박예지는 이번 국제대회 메달을 발판으로 오는 10월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메달 획득에 도전할 예정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지난해 부상으로 국제대회 출전이 무산됐던 아쉬움을 이겨내고 아시아 유·청소년선수권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한 박예지 선수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PGA 투어 2028년 챔피언십 시리즈 ‘윌콕’

10개 대회 확정...23~24개 대회 목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2028년부터 시작하는 챔피언십 시리즈의 윌콕이 드러났다. PGA 투어는 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년 뒤 시작하는 챔피언십 시리즈에 캐딜락 챔피언십이 추가돼 최소 10개 대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PGA 투어는 2028년부터 정상급 선수들만 출전하는 챔피언십 시리즈와 나머지 선수들이 출전하는 챌린저 시리즈로 나눠 대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챔피언십 시리즈는 23~24개 대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확정된 챔피언십 시

리즈 대회는 5일 발표된 캐딜락 챔피언십을 포함해 더 센트리, 숏트 대회(대회명 미정),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아널드 파커 챔피언십에다 4대 메이저 대회와 플래이어스 챔피언십까지 10개다. 여기에 격년제로 열리는 팀 대항전 프레지던트스컵 또는 라이더컵이 포함되면 2028년 챔피언십 시리즈의 절반 정도 대회가 확정된 셈이다. PGA 투어는 확정한 대회 이외에도 보스턴, 덴버, 뉴욕, 필라델피아 등에서 새 개최지를 모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SOOP, 여자 배구 유망주 세계무대 비춘다

FIVB 세계 여자 U-17 대회 한국 경기 온라인 생중계

여자 배구 유망주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모습을 SOOP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SOOP은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칠레에서 열리는 ‘2026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 여자 U-17 배구선수권대회’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온라인으로 독점 생중계한다고 5일 밝혔다. FIVB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24개국이 참가해 미래 여자 배구를 이끌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룬다. 한국은 지난해 U-16 아시아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르며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확보했고, 아시아 챔피언 자격으로 세계 각국의 강호들과 맞붙는다. 대표팀에서는 손서연의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손서연은 지난해 U-16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MVP와 득점왕을 동시에 차지하며 한국의 우승을 이끌었다. 당시 우승 멤버들도 이번 대표팀에 합류해 세

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입증할 예정이다. SOOP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치르는 조별리그부터 토너먼트까지 전 경기를 온라인으로 독점 중계한다. 공식 중계와 함께 스트리머들의 코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해 이용자들이 실시간 채팅과 다양한 해설을 즐기며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소년과 아마추어 배구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SOOP은 대한배구협회와 함께 오는 9월 30일까지 ‘SOOP X 대한배구협회 아마추어배구 스트리머 육성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클럽과 초·중·고교,

대학 배구 동호인을 대상으로 SOOP 모바일 방송을 활용해 경기와 훈련, 팀 활동 등을 직접 콘텐츠로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젝트 기간 배구 콘텐츠를 가장 오래 방송한 상위 10개 팀에는 팀당 장학금 30만원과 배구공 5개를 지원한다. SOOP은 V-리그와 성인 국가대표 경기, FIVB 주요 국제대회에 이어 이번 U-17 세계선수권까지 중계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대한배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유소년·아마추어 배구 지원도 지속하며 배구 팬들과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